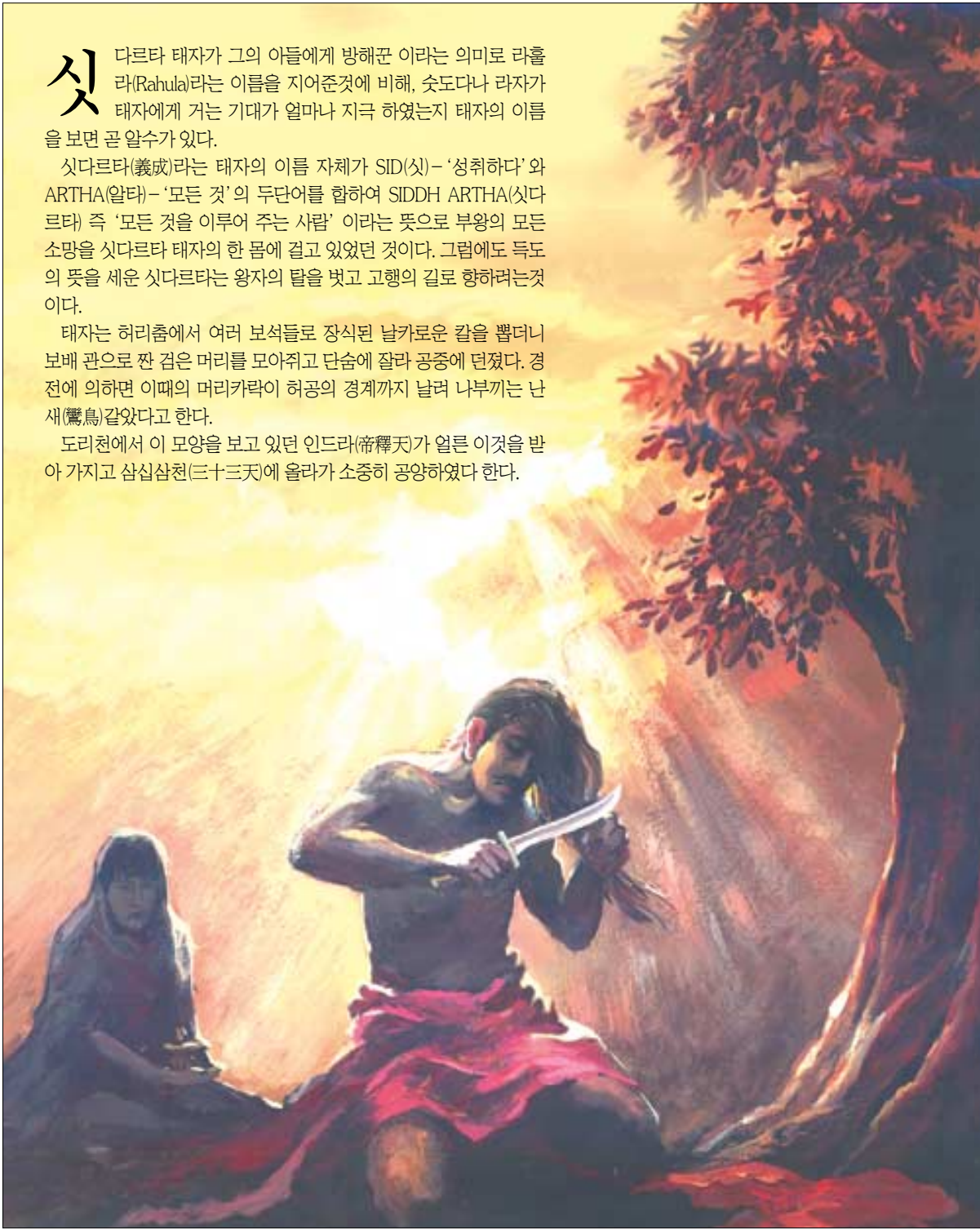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 9화 식발



식 다르타 태자가 그의 아들에게 방해곤 이라는 의미로 라홀라(Rahula)라는 이름을 지어준것에 비해, 솟도다나 라자가 태자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지극 하였는지 태자의 이름을 보면 곧 알수가 있다.

식다르타(義威)라는 태자의 이름 자체가 SID(식)- '성취하다'와 ARTHA(알타)- '모든 것'의 두단어를 합하여 SIDDH ARTHA(식다르타) 즉 '모든 것을 이루어 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왕의 모든 소망을 식다르타 태자의 한 몸에 걸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득도의 뜻을 세운 식다르타는 왕자의 말을 벗고 고행의 길로 향하려는 것이다.

태자는 허리춤에서 여러 보석들로 장식된 날카로운 칼을 뽑더니 보배 관으로 짠 검은 머리를 모아쥐고 단숨에 잘라 공중에 던졌다. 경전에 의하면 이때의 머리카락이 허공의 경계까지 날려 나부끼는 난새(鸞鳥)같았다고 한다.

도리천에서 이 모양을 보고 있던 인드라(帝釋天)가 얼른 이것을 받아 가지고 삼십삼천(三十三天)에 올라가 소중히 공양하였다 한다.



“찬 타카, 끝까지 나의 시중을 들겠다는 너의 뜻은 참으로 가늠하구나... 그러나 나는 이제 일국의 태자도 아니어서 더 이상 시중을 받을 이유가 없다. 만약 네가 내 주위에서 댄들면 오히려 나의 수도 생활에 방해가 될 뿐임을 알아야한다. 지금까지 나를 보필하느라고 참으로 수고하였다. 여기 내가 그동안 간직했던 보배영락들을 모두 너에게 줄 것이니 이것으로 나와와 작별을 위로하라.”

태자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강을 건너 멀리 사라져 버렸다. 뒤에 남아 있는 찬타카는 허탈한 마음으로 언제까지나 강가에 앉아 슬피 울면서 태자의 가벼린 환영만 응시하고 있었다.

식다르타는 이제 홀로 걷고 있었다. 울창한 밀림속에 자신을 보호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슬그머니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우선 끼니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예고 없이 달려드는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잠자리는 어떻게 해결하며 여러 가지 독충들은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생전처음 경험하는 일들로써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따위 일로 흔들릴 수는 없는 것이다. 어차피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혼자, 그리고 죽을 때도 혼자인데 모든 것을 그저 운명에 맡긴다고 생각하니 두려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밤 이 되었다. 한순간에 숲의 아름다움이 어둠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이곳 저곳에서 이름모를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소름끼치게 들려왔다. 식다르타는 자신도 모르게 안장을 찾을 수가 없었다. 도대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삼매(Samadhi)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울창한 숲속의 나뭇가지들을 헤치고 밝은 달이 동실 떠올랐다. 달빛이 흐르는 냇물을 비추자 물결이 반짝 반짝 빛나며 마치 하늘의 은하수를 냇물에 흘려보내고 있는 듯 보였다. 한 순간에 짙은 어둠이 물러갔고 야행성 동물들도 몸을 숨기지 이전 숲 속에서도 견딜만 하다고 생각되었다.

일단 두려움이 가시자 마음이 평온상태로 되돌아 왔다. 식다르타는 타저는 숲속에 흐르는 사냇가 변의 커다란 나무 밑에 가부좌하고 본격적인 좌선에 돌입하였다. 이곳에서 죽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최초의 싸움에 임한 것이다. 더 이상 맹수의 울음소리도 몸으로 기어오르는 독충들의 독침에도 두려워하던 마음이 말끔히 사라져 버렸다. 식다르타는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삼매의 경지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다.

밤이 깊어갔다. 식다르타는 모든 것이 다 처음 겪는 경험이라서 정신적인 피곤을 여찌지 못하고 그만 그 자리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식다르타의 행동을 끈질기게 감시하던 맹수들은 서서히 새로운 침입자 결의로 물러들었다. 그리고 찬찬히 침입자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 모습이 하도 깨끗하고 편안하여 두려움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 식다르타의 모습에 맹수들은 오히려 기가 꺾여 더 이상 그를 해칠 마음을 갖지 않게 되어 버리고 말았다.

신비로운 숲속의 밤이 꺼지고 멀리서 밝은 빛이 숲 속으로 찾아 들었다. 식다르타도 긴장에서 깨어나 평화로운 숲속의 정취를 체험하게 된 것이다.

